

화엄경의 품은 넓고 크고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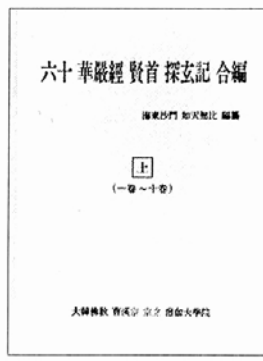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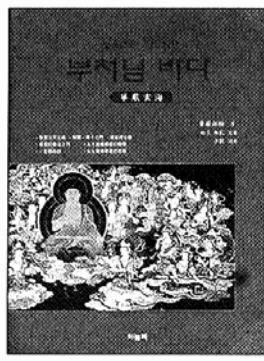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후 최초 37일간의 설법을 수록한 <화엄경>은 분량과 내용, 그리고 문학적성에 있어 으뜸 경전으로 꼽힌다.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화엄경>에 펼쳐지는 세계관, 우주관, 연기관을 비롯 보살도 사상, 수행 계위 등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부피에서부터 사람들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많은 화엄의 대중자들이 여러 생을 바쳐 연구하고, 또 연구할 만하다. <꽃으로 장엄한 부처님 바다> <화엄 탐현기 합편> <전 2권·승가대학원>이 그 책이다.

■ 화엄서 2권 출간

꽃으로 장엄한 부처님 바다 60화엄 탐현기 합편

<꽃으로 장엄한 부처님 바다>는 전통경학연구 결사도량인 승가대학원에서 화엄의 여러 저술들을 한데 묶어 출간했던 <화엄현해>의 내용을 가운데 요긴한 내용만 발췌, 원문과 함께 우리말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 책은 두순선사가 저술한 <화엄법계관문>에 대한 청량국사의 주석서인 <화엄법계현경>을 시작으로 <화엄일승십현문>, <화엄경지귀>, <화엄경의해백문>, <화엄약해>, <삼성원용관>, <화엄요해>가 풀이돼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각 경전은 두순선사를 비롯 지엄·법장·청량선사 등 화엄 대중들이 저술한 것으로, 그들의 사상까지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승가대학원에서 삼학을 연찬하고 있는 역해자 고경삼님은 "화엄의 세계와 참선의 세계를 합치한 사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을 부처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며 화엄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승가대학원장인 무비스님이 내놓은 <60화엄 탐현기 합편>은 화엄경 이해의 필독서인 현수 법장스님의 <화엄경의해백문>, <화엄약해>, <삼성원용관>, <화엄요해>가 풀이돼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각 경전은 두순선사를 비롯 지엄·법장·청량선사 등 화엄 대중들이 저술한 것으로, 그들의 사상까지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무비스님은 서문에서 "60화엄 탐현기 합편"은 한국불교교회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일본 대만 등의 선각자들의 연구서를 참고하여, 새로운 체제로 <탐현기>내의 과목을 밖으로 끌어내어 내용별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했다"고 합편의 의의를 밝혔다. <화엄경>을 읽은 사람들은 "인류

사 최대의 사건은 세존의 대오이고, 최대의 작품은 바로 <화엄경>이다"고 극찬한다. 이러한 화엄의 바다에 빠져보는 것은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 거쳐야 할 평생의 과제가 아닐까. <꽃으로 장엄한 부처님 바다> 값 2만2천원. <60화엄 탐현기 합편> <전 2권> 값 20만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반성적 시각으로 본 20세기 한국불교

김광식씨 '...한국불교백년'

90년전 만해 한용운스님은 <조선불교유신론>을 통해 20세기 불교의 진로를 '목미름의 불꽃'으로 표현했다. 불교 유신의 질박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또다시 새 천년의 문턱에서 만해스님이 절기가 되살아 나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만해스님이 고민을 거듭했던 불교의 뒤틀린 현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에 대해 김광식씨(대각사상연구원)는 "21세기 한국불교사의 명암은 철저한 자기 반성에 달려 있다"며 "자기를 냉철하게 되돌아 볼 수 없는 나약한 현실인 식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한다.

김광식씨는 바로 이러한 불교관을 <우리가 살아 온 한국불교 백년>(민족사)이라는 책으로 풀어냈다. 반성적 시각에서 한국불교를 살핀 이 책은, 20세기 한국불교의 주요 흐름을 연대별로 요약 정리하고 있다. 근대불교의 여명(1900~1905년)을 시작으로 식민지 불교의 성립, 3·1운동과 불교, 한국전쟁과 불교, 불교개혁의 출범, 그리고 최근 개혁의 시련까지 100년간의 불교사를 개괄적으로 적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무엇보다 21세기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고뇌하는 이 시점에서 출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더한다. 값 4천원. 김중근 기자



성보문화재의 뒷이야기

진홍섭씨 '목재한화'

한국불교의 성보문화재들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우리 앞에 있을까. 찾은 병란과 의식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난을 받은 것 중의 하나가 문화재이고 보면 당연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진홍섭(한국미술사학회 이사) 씨가 펴낸 <목재한화>(대원사)를 보면, 옛 문헌에도 등장할 정도로 극성을 부렸던 성보 문화재 도굴꾼들의 행각과 조선시대 성보 문화재의 수난사를 소상하게 알 수 있다. 또 신라의 대할 영묘사의 위치, 부석사에 응크리고 있다는 석룡(石龍)의 진위, 고려 문종의 4째 아들인 대각국사의 의천이 초대 주지를 맡은 흥왕사의 사적 등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의 손목을 자른 '도탄'이라는 인물을 추적해 낸 대목을 보면 그저 허망할 뿐이다. 책발자는 조하방(1682~1747)의 문집 <서주집>에 실린 칠언시 '실상사전철불유음'에 나온다. "불상을 물리침은 원래 유자의 일이나... / 도탄에게 다시 배울 줄 어찌 알았으랴" 도탄은 종종 24년부터 선조 30년 까지 생존하던 변사장의 후다. 또 이 책에는 고려시대 등



종은 물론이거니와 몇몇 남지 않은 신라 동종도 극내 현존하는 것보다 일본에 더 많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왜인구정담록>(왜인들이 구하기를 청한 물품과 기증 여부를 기록한 장부책)엔 조선 건국 이후 약 250년간 각종 불경, 사경, 범종 등 성보 문화재를 모두 127회 청구했는데 조정은 이 가운데 80%를 송납했다는 것이다. 성보 문화재에 대한 조선 왕조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다 하겠다. 이렇듯 50여년간 문화재와 함께 해 온 진세의 이야기 스물 여섯 편을 훑다 보면 성보 문화재의 가치와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생생한 증언과 함께 지금은 도굴돼 사라진 성보 문화재들의 빛바랜 옛 사진들을 보는 즐거움도 배놓을 수 없다. 값 1만2천원.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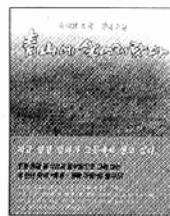
소설로 쓴 생태마을 보고서

홍석화씨 '청산에 살어리랏다'

토종·뒷간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는 홍석화씨(51)가 토종생태마을 건설과정을 그린 소설 <청산에 살어리랏다>(세계인)를 내놓았다.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책은, 지친 몸을 이끌고 귀중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보고서'이자 '다큐멘터리'이기도 하다.

일종의 '유토피아' 소설인 이 책의 무대는 한백산(한라산+백두산) 자락에 위치한 남향마을이다. 풍기의 멋에 심취한 이영식, 죽염을 굽는 최현배, 남자 미용사 김대교, 민간의학사서한일, 농사꾼 박경인·김금순부부

등은 우선 영농조합을 결성해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이들은 에너지 절약형 가옥으로 전환, 오폐수 처리를 위한 개량변소,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풍력발전, 건강 유지를 위한 향토 음식 개발 등을 통해 토종생태마을을 건설해 간다. 마을건설의 중심축은 식량의 자급 자족이다. 식(食)·주(住)·의(衣) 등 생존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요양원을 통해 의료 문제를 해결한 뒤, 대안 교육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식량농사→요양원→학교로 줄거리가 이동하는 것도 그러한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다.



최근 생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고 있는 가운데 출간된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농촌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환경을 살리고 땅을 살리는 일에서부터 생태의 건강성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석화씨는 "이 이야기의 무대는 가상의 공간이지만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토종마을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귀농하여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귀농하여 살고픈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한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불교학자의 삶과 사상

정태혁 수상집 '불교산책'

동국대 정태혁 명예교수의 수상집 <불교산책>이 동문선에서 나왔다. 정교수는 <인도철학> <밀교의 세계>를 학술서를 낸 적이 있으나, 자신의 생각을 적은 글만으로 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천 년의 역사를 통해 인류가 체험하고 보여 준 지혜의 등불을 높이 키쳐들고, 냉철한 현실 비판의 지성과 너그러운 동포애의 포용력과 뜨거운 통일 열정으로 민족의 일원인 평화통일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등불, 그 지성, 그 포용력, 그 열정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에 있다." 불자들이 평화통일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불교사상으로 본 평화통일의 원리'로 이 책은 시작된다. 이어서 '종교·기도란 왜 필요한가', '불교의 바른신앙' 등의 신행적인 측면에서부터 불교학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 대한 정교수의 생각이 녹아 있다.

<불교산책>은 종교일반에서부터 요가와 선, 그리고 힌두교와 밀교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책이라 할 수 있겠다. 값 2만원. 김중근 기자



새로운 책

▲의천대각국사(김희수 지음, 추전서담) = 찬태사상을 꽃피운 의천대각국사(1055~1101)의 행장을 좇아가는 구도소설. 글쓴이가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등 의천대각국사의 발자취를 답사하고 쓴 이 책은, 탄생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적고 있다. 값 9천원.

▲그때 그대는 어디 있었는가(안덕상 지음, 인화) = 87년 <현대사화>에 '보리' 등을 발표하면서 시작 활동을 시작한 안덕상씨(KBS라디오 기술국)의 세번째 시집. 글쓴이에게 있어 도피안사 절불은 속박으로부터 해방이요, 현실로부터 벗어남인 듯하다. 도피안사를 주제로 쓴 25편의 시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값 5천5백원.

▲밀레니엄 문화읽기(박정진 지음, 불교춘추사) = 밀레니엄은 성공과 희망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인류학자 박정진씨가 밀레니엄의 출발점에서 문명을 여러 각도로 파헤치고 있다. 문명을 남성과 여성, 가부장제와 모성적 근본이라는 시각에서 본 '여자의 아이를 키우는 남자'를 시작으로, '종교는 인간의 본능이다' '신(新) 불교명명' 등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값 9천원.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해홍스님 지음, 부다가야) = 불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교훈적이고 진솔한 이야기. 불교방송 '생활속의 부처님 말씀' 모음집이기도 하다. 값 8천원.

▲시공간 잡는 역학(김덕영 지음, 명지사) = 문명을 짊어주는 역학 가이드. 역학의 정의와 역사를 다룬 기초편을 비롯 밀레니엄 아기의 운명감정, 사주로 풀이한 어린이 교육방법, 종교와 역학 등이 수록돼 있다. 값 1만5천원.

▲유명한 사람들의 전생이야기(데이비드 뱅스 지음, 서민수 옮김, 도솔) = 개인별로 전생을 확인해 보는 방법을 이론적인 체계를 세워 제시하는 책이다.

또 종교인·학자·문인·정치인 등 모두 41명의 전생이야기도 담고 있는데 한국어판에는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정주영, 김일성, 김정일 등 한반도의 정치사회지도자들의 전생이야기도 들어있다. 값 7천9백원.

◇ 금주의 베스트불서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만행·허버트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린원
2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래	
3	공감경 경해	김 용 옥	통나 무
4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 립	
5	노자와 21세기(하)	김 용 옥	통나 무
6	풍경	원 성 이 래	
7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8	방편개시	대 성 여사이문	
9	오케이이야기	일 타 효 립	
10	불교입문	조계종연구원	조계종출판사

책방 역시인 집게 도서 안내: (02)737-0695

알고싶은 불교상식 100가지

100문 100답

정승석 교수의 명쾌한 풀이!
100문 100답!
개정판

불교를 쉽고 바르게 풀이한 100가지 문답!

불교의 기초가 되는 이 100가지만 알면, 누구라도 자신있게 불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불교입문서!
언제 어디서나 얘기하고 싶은 불교!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불교!
100문 100답에서 찾아드립니다.

정승석 교수의 글은 안전하고 자상합니다. 정승석 교수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로 계시며 <사한잔을 마시며 나누는 불교교리> <고려대장경 해제> 등 10여 권의 저서가 있습니다.

*교양대학 및 사철의 범보시 주문 받습니다.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교 명언집!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석지현 스님 엮음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색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갖지 말라.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와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들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치성하게 들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게 합니다.

46판 양장 / 값 5,000원

법보시 주문받습니다.
가까운 이에게는 선물로, 은혜 받은 이에게는 범보시로 이 책을 선물합니다.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에 이어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도 나왔습니다.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

정효스님 엮음(시인, 불교신문 사장) 46판 양장 / 값 5,000원